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인 조영식 / 주간 이석우 / 편집장 이지환 / 인쇄인 허수남

서울캠퍼스(우: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961) 0095, (963) 5849 FAX(963) 5849
수원캠퍼스(우: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1 ☎(745)5702 (교환:2056,2860) 직통 (0331)280-2056,2860 FAX(0331) 280-2238

제993호 〈주간〉 1992년 3월 2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등록번호 다-12 (1955년 5월12일 창간)

'92학년도 입학식 오늘 거행

서울 노천극장, 수원 체육과학관앞 광장서 열려

92학년도 입학식이 오늘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10시에, 수원캠퍼스는 체육교육관앞 혁명광장에서 오후2시에 거행된다.

총 4천3백80명(서울 2천명, 수원 2천2백60명, 간호전문대학 1백20명)의 신입생을 맞이하게될 이번 입학식은 예년과 달리 캠퍼스별로 진행된다.

양캠퍼스 교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오늘 입학식은 총장의 입학허가를 시작으로 서울, 수원 수석합격자인 한의예과의 정호진군과 전자공학과 권용재군의 신입생선서가 있게 되며 장학생(서울 3백56명, 수원 1백70명)들에 대한 증서수여식이 진행된다.

이어 조영식총장은 훈사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명의 창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자신을 닦아달라는 것입니다"며 신입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밝힌다.

또한 24다 서울, 수원 총학생회장인 박홍근(국문·4), 최만식(경영·4)군의 인사가 있으며 이어 음대 브라스밴드의 축하연주가 있을 예정이다.

교무위원 워크샵 열려

1학기 학사운영방안 논의

지난 28일 본관 교수협의회실에서는 교무위원 워크샵이 있었다.

이날 회의는 기획, 교무, 학생, 사무, 대학원등 5개분과로 나뉘어져 37명의 교무위원들이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은 대외연구비유치, 수시시험제도의 활성화, 교수 학생의 유대강화, 학내숙식금지, 단과대학 써클룸 배정 배제, 영어강의 확대시행 등 9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전반에 대하여 토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토론된 내용은 오는 3일까지 원고작성을 완료하고 7일 있을 전체교수회의 시간에 각 분과별로 20분에 걸쳐 토의, 발표된다.

수원 학자추 기관지 발행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산하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이하·학자추)는 지난해 부정기적으로 간행되던 학자추 기관지 '자주화원'을 오는3일부터 격주간으로 화요일마다 정기발행 한다.

'자주화원'은 타블로이드판 4면으로 구성되며 학원자주화에 관련된 내용과 학자추의 사업소개, 학생들의 의견등을 싣게된다.

서울 수강신청 정정기간 발표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캠퍼스 교무처는 수강신청 정정 및 최종수강신청기간을 발표했다.

신입생과 복학생, 신청 누락자의 수강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3일 까지 실시하며 OMR 카드에 작성하여 각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고 정정은 OMR 카드 및 정정원을 작성한 후 OMR 카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교무처에서는 "이 기간외에는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에 대한 정정을 할 수 없으며 이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학생 자신이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밝혔다.

서울 학생처 신규 학생증 신입생에 한해 발급

서울캠퍼스 학생처는 그간 학생증과 도서대출증이 분리되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어온 것을 감안해 92학년 신입생부터 현 도서대출증 크기로 학생증을 제작해 도서대여를 학생증으로 할 수 있게 했다.

현 재학생은 종전과 같은 대출증을 쓰게 되며 대출증 신규 및 재발급은 오늘부터 도서관 대출계에서 시작한다.

이에따라 오는 3월말까지는 도서대출증을 매일 발급하며 이후에는 매주 금요일에만 발급 받을 수 있다.

신규발급시에는 등록이 확인된 학생증이나 1학기 등록 영수증, 반명함판사진 1매를 지참해야하며 재발급시는 재발급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등록기간이 정해질때까지 등록영수증없이 대출할 수 있다.

치과대 부속병원 개관

의약관 공간부족 해소에 도움

치과대학부속병원 개관식이 조영식총장, 차경섭 재단이사장 등 학교 내외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거행됐다.

개관식이 열린 치과대학부속병원은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3천23평 규모로 지하3층까지 병원용도로 쓰이며 나머지 공간은 대학건물로 사용된다.

치과대학부속병원의 내부 주요 공간배치는 다음과 같다.

▲지하1층: 대강당, 대학 강의실 3개, 학생탈의실, X—Ray창고

▲지상1층: 치과위생실, 교정과 약국, 기공실, 접수·수납 창구

▲지상2층: 치주과, 교수회의실, 임상강의실, 수술실, 특진실, 유아치과

▲지상3층: 보존과 원내생치료실, 원내생기공실, 보철과

▲지상4층: 실습실2개, 임상전단계 실습실, 강의실 2개, 기자재 보관실 및 실습준비실

▲지상5층: 도서실, 구강조직학교실, 교수연구실, 회의실, 학장실, 교무실, 구강병리학교실

▲지상6층: 예방치과학실, 치과재료학실, 구강해부학실, 학생자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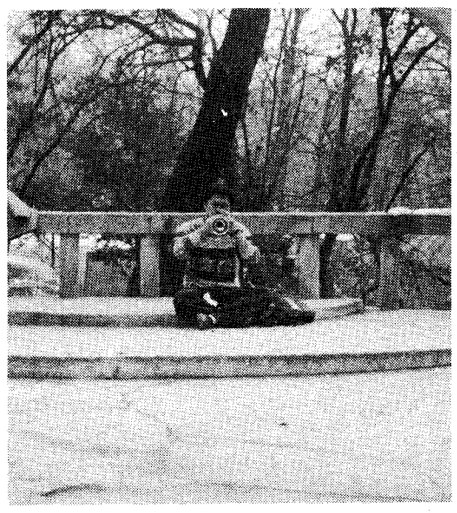
치과대학은 이번 부속병원이 신축됨에 따라 의약관 2, 3층에 예과강의실 2개, 실험실 2개, 실험준비실 공간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학생자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캠퍼스 표정

우리가락의 청명함

언제부터인가 외국음악에 익숙해오던 우리의 귀에 청량함마저 느끼게 해주는 태평소의 경쾌한 리듬.

우리의 문화와 혼마저 탁해져감을 느낄 수 있는 운율의 여운이 얼마나 지속될는지…



〈지난 26일 임간교실에서 한 학생이 태평소 부는 모습〉 〈엄홍준 記者〉

단체협약 노·사 의견차로 진통

학교측 경영, 인사권 안에 노조 반발

92년도 단체협약 갱신안중 학교측의 '대학교의 경영 및 인사권과 조합의 노동권을 상호존중한다'는 가안에 대해 노동조합(이하 노조)측이 강력히 반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7시30분 서울캠퍼스 기획위원실에서 열린 3차 단체협약 협상과정에서 단체협약 전문에 게재된 경영권 및 인사권이 협약의 적용범위, 조합 전임자 처우, 조합활동, 시설편의 제공과 게시판 사용등 단체협약의 구체적 내용들과 상반되는 점이 많다고 노조측이 주장,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학교측은 "대학이 기업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닌 만큼 노조가 경영권과 인사권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우선 학교측의 단체협약안 제3조의 '협약의 적용범위'부분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보조직과 일용직 노동자들을 협약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조항으로 노조측이 반대하고 있으며 제12조인 노조 전임자 처우항에서도 '조합원이 전임자가 될때에는 휴직처리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언급돼 있어 노조측은 노조와해음모라며 격렬히 비난하고 있다.

또한 노조측은 제13조인 '조합활동은 취업시간중에 행하지 아니한다'는 학교측의 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시설제공이나 게시판 사용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노조의 이훈용 사무국장은 "13일 열리는 4차 협상의 결과를 지켜본 후 별다른 진전의 기미가 없을 때는 25일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극한적인 상황에는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사 령

편집장:전만환(정외·4) 취재부장:오세윤(원자공·4) 특집부장:조인성(국문·3) 문화부장:김미령(국문·3) 免 임기만료

任편집장:이지환(사회·3) 취재부장:엄홍준(서반아어·3) 김기태(경제·3) 기획학술부장:송보영(중문·3) 문화부장:이금주(국문·3)

이상 3월1일자

대 학 주 보 사

학내식당 효율적 운영 절실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등 굵직굵직한 선거일정속에서 전국은 다시 한번 정치 회오리에 휘말리고 있다. 그러나 정치판의 열기에는 아랑곳없이 일반서민들의 근심은 경제불안정에 쏠리고 있는 것 또한 요즘의 실정이다. 하늘모르고 치솟고 있는 물가에 서민들의 등살은 베겨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선거에서 선심용으로 풀리는 돈에 의한 경제사정의 악화가 물가불안의 큰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학생들의 경우 직접적인 경제부담이 덜한 관계로 물가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못한 편이나 학교앞 음식값에 대해서는 저마다 한마디씩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불과 3~4개월전만해도 학교앞에서 웬만한 음식점에 가면 1천 5백원정도로 거의 모든 메뉴의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즈음 사정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하루에 많으면 1만원정도의 용돈을 갖고도 후배 3명이상이 따라붙으면 은근히 주머니사정이 걱정되는게 현실이 되어버렸다. 30%이상이 뛰어버린 물가에 아연질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학교앞 물가폭등에 총학생회 산하 인권복지위원회(이하 인복위)에서 업자들과의 협상과 함께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그 전망은 밝지 않은 듯하다. 업자들은 건물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등의 값이 인상에 주된 요인임을 강조, 약간의 인하(2백원정도) 이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복위측에서는 대폭적인 인하를 요구,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기는 힘든게 사실이고 불매운동 또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역부족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미 뛰어버린 물가에 대해 누구를 탓할 수는 없다. 업자들에게 지나친 요구나 불매운동은 실효성에 있어서 그렇게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지금의 상황에서 차선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교내식당의 활성화일 것이다. 학생회관 식당의 질개선 및 종류의 다양화와 함께 새로 건립될 복지회관내 식당의 학교직영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집중 연구해 학교밖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을 다시 학내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교수연구년제' 대상 확정

문리대 남기영교수등 4명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실시한 '교수연구년제' 제3차 해당 교수가 확정됐다.

해당 교수는 본교 교수들로 구성된 학술연구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장인 교무처장이 확정했다.

선발된 교수와 연구기간은 다음과 같다.

▲남기영(문리대·철학)교수 오는 8월31일까지 ▲유기현(정경대·경영), 이종각(사범대·미교), 조창한(공대·건축공학) 교수는 93년 2월28일까지, 연구기간을 갖는다.

사 고

대학주보 41기 수습기자 모집

17일 오후6시 원서마감

대학의 민주화와 학문·사상의 자유를 위해 건전한 학풍과 대학문화를 건설하고 있는 대학주보가 92학년도를 이끌어갈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 양캠퍼스 신입생

▲모집부문 : 일반(취재, 학술, 특집, 문화)기자, 컷(만화)기자, 광고(기획, 카피, 도안)기자, 사진기자

▲선발방법 및 일정

1) 시험전형 : 주제토론, 인성조사, 작문 및 면접

2) 시험일시

△서울캠퍼스 : 1992. 3. 17(화) 오후6시

△수원캠퍼스 : 1992. 3. 18(수) 오후6시

3) 시험장소 : 양캠퍼스 편집실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서울편집실 (구내전화 0095), 수원편집실 (구내전화 2056)

▲원서접수 마감 : 3월17일 오후6시까지

대 학 주 보 사

1992년도 징병 검사 실시 공고

1992년도 징병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징병검사 대상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992년 1월 일 병무청장

1. 징병검사 대상자
○ '73년 1월 1일-'73년 12월 31일 출생자 (19세 대학 재학생 전원 포함)
○ '72년 이전 출생자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자
*개인별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는 본적지 구·시·읍·면장이 수검일 20일전까지 징병검사 통지서를 송달함.

2. 병역처분 기준
○학력별로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되는 기준

신체등위 /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5급	6급	7급
대학 고졸 고퇴 중졸	현			역		제2 국민역	병역 면제	재검사 대 상

※중학교 중퇴이하자는 신체가 건강해도 현역입영이 면제됩니다.
○주요 신체부위별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징병검사 통지서 송달시 보내드리는 『징병 신체검사 이렇게 합니다』 안내 팜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복무단축 또는 면제되는 사유

복무단축 대 상	○본인이 아니면 가사를 돌볼 가족이 없는 자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 60세이상인 독자, 2대 이상의 독자 ○전사, 순직 또는 상이정도가 5급이상인 전·공상 군인의 자제중 1인
면제대상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2년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집행유예자 제외) ○고아, 귀화자 및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징병검사 결과 현역 입영 대상자로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특례업체에 취업하여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되면 현역 입영이 면제됩니다.

4. 징병검사 연기대상

연 기 대 상	처리절차	참 고 사 항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지방병무청장의 출국 허가에 의하여 연기	23세까지 연기
17세이전 출국자로서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자	병무청장의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에 의하여 연기	국외체재기간 연장원서를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
범죄로 구속 또는 복역중에 있는 자	구속확인서, 수형인명표 또는 재소증명서에 의하여 연기	구속 또는 재감기간중 연기
징병검사 기일연기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징병서에 출서할 수 없는 자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려운 자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학기말시험, 교내 주요행사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한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기 어려운 자	징병검사 기일 5일전까지 본적지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에 게 연기원서를 제출	• 제출서류 —징병검사기일 연기원서:소정양식(구·시·읍·면 교부) —진단서:질병 또는 심신장애자의 경우 —학교장 또는 구·시·읍·면장의 사실 확인서등 관계 증명서류

5. 거주지 징병검사 출원 안내
○출원대상:본적과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단, 본적지와 거주지 징병검사 장소가 동일한 경우는 제외
○출원기일:늦어도 거주지 구·시·군 징병검사 개시 30일전까지 (2.11일이전 수검자는 1.31일까지)출원. 단, 본적지 징병검사 기일이 경과된 자는 제외
○출원서류:거주지 징병검사원서 1부
단, 본적지 구·시·읍·면장으로 부터 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 첨부
○출원관서: 거주지의 구·시·읍·면

6. 우선 징병검사 출원안내
○ 출원대상: 국외 왕래 선박선원등 국외여행을 하기 위하여 본적시 구·시·군의 징병검사기간 전에 우선 징병검사를 받고자하는 사람
○출원서류 : 우선 징병검사원서 1부 (소정양식)
국가기관발행 국외출국관계 수속 증명서
○출원관서:본적지 구·시·읍·면

7. 재학생 입영연기 및 입영원 출원 안내
○19세자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전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징병검사를 받은 후 고교이상의 학교에 재학또는 입학한 자는 학교별 제한연령(전문대학:22세, 대학:24세, 대학원: 26세) 내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출원없이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졸업시까지 입영이 연기됩니다.
○재학중 입영을 원하는 자는 학적을 보유한 채 본적지 또는 거주지 구·시·읍·면에 입영원을 제출하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하여 드립니다.

8.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등의 처벌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며 징병검사를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게 된자 및 징병검사 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 아니한 자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9. 유의사항
○현역또는 복무기간 단축이나 면제등 병역처분은 학력, 신체정도, 연령등 법령상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되고 있으며, 그 누구의 청탁이나 임의로 처리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외관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간질, 결핵, 정신질환, 내과질환 등 수치성 질환과 고아, 수형, 저학력등 신분상 결함으로 면제되거
나 불합격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 청탁 혹은 적절한 방법으로 면제 또는 불합격된 양 헛소문을 내는 경우가 있으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병역을 면제시켜 준다는 구실로 금품을 요구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간혹 있다고 하니 이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러한 경우가 있으시면 이를 즉시 병무신고 전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별 구·시·군별 검사일정(본적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문의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 신고 안내

1. 92년도 대학 및 대학원 신입생과 복학생 중 예비군 대원 편성신고를 실시하니 대상자는 전원 기일 엄수 신고하기 바라며 지연신고자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가. 지 참 물 : 칼라 증명사진 1매
나. 신고기간 : 92. 2. 25-92. 3. 13
다. 신고장소 : 예비군 연대본부(본관 1층)
2. 이미 편성된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서 주소이전 및 휴학자는 즉시 신고할 것.
3. 본인이 연대본부에 신고하지 않은 학부 미졸자 및 대학원 진학자는 전원 전출조치 하였으니 연대본부에 문의 후 재신고하실 것.
문의전화: 961-0148~9

경희대학교직장예비군연대장

변경된 예비군 교육제도 안내

921년도부터 예비군교육 제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대상을 공지하니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가. 대상
• 7년차(85년 전역자) 이상 만33까지의 병 전역자
• 8년차(84년 전역자) 이상 10년차 (82년 전역자) 이하의 간부 (단기하사 이상 장교출신)는 훈련면제
• 11년차 이상 간부 (단기하사 이상 장교출신)는 훈련 면제(과거와 동일)
나. 교육시간: 4시간(소집점검)
다. 교육장소:학교내
라. 교육내용:정신교육, 관계법규, 편성
마. 교육일정: 추후통보
문의전화: 961-0148~9

경희대학교직장예비군연대장

공 고

수강신청 정정 및 최종수강신청

학과별로 사무실에 비치된 제 1 차 수강신청 내역 (수강신청대장)을 확인, 정정하고, 복학생, 신입생을 포함한 수강신청 누락자는 반드시 이 기간에 수강신청해야함.

1. 기 간 : '92. 3. 9(月)-13(金)
2. 장 소 : 각 학과 사무실
3. 방 법 :
가. 수강신청 정정:
1) 수강신청 내용과 상이할 경우,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정정용 OMR CARD 및 학생보관용 수강신청 정정원을 확인한 후 OMR CARD만 제출
2) 학과에 배부된 확인용 수강신청대장을 반드시 열람하고, 학수번호의 오기로 인해 다른 교과목명이 나온 경우와 신청과목중 누락된 과목 (대장상에 **** 으로 표기됨)이 있을 때 에는 수강신청 정정용 OMR CARD 및 수강신청정정원을 작성한 후 OMR CARD 만 제출한다.
3) 유의할 점은 반드시 수강신청 정정용 OMR CARD의 삭제과목란과 추과 과목란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나. 최종 수강신청:
1) 복학생과 수강신청누락자(기수강신청자중 학번오기로 인해 확인용 수강신청 정정용 OMR CARD 및 학생보관용 수강신청원을 작성한 후 OMR CARD만 제출하며, 이 기간 외에는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에 대한 정정을 절대 할 수 없다.
2) 반드시 수강신청용 OMR CARD 에 기입하여야 한다. (수강신청 정정용 OMR CARD에 기입하여 신청과목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
4. 비고:
상기 기간내에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학생자신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OMR CARD 작성시는 반드시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한다.

서울캠퍼스교무처장